

글로벌 공급망 인사이드

Global Supply Chain Insight

금주의 공급망 Insight

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

- 【반도체, 일본】 日 정부, 반도체 장비 23종 수출 규제 돌입
- 【광물·배터리, 일본】 日 "아프리카 3국과 배터리 광물 개발"
- 【광물, 베트남】 베트남, '30년까지 연간 200만 톤으로 희토류 생산 확대
- 【광물, G7】 G7, 핵심 광물 특정국 수입 비율 설정 검토
- 【광물, 전세계】 ISA 심해 광물 채굴 허용 '24년 이후 결정...회원국간 의견 대립
- 【제조업, 미국】 바이든 美 대통령, 자국 제조업 살리기 행정명령에 서명
- 【에너지, 중국】 中, 6년 만에 석탄화학 산업고도화 정책 발표

공급망 뉴스 더하기

IPEF 4차 협상 주요 내용 및 경과

공급망 전문가

중국의 드론 및 관련 부품시스템 수출통제 살펴보기

공급망 소식통

- ① 2023 Korea Electric Vehicle Autopart Plaza(KEVAP) 안내
- ②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대중국 무역의존도 향방 세미나

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

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

○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

■ [반도체, 일본] 日 정부, 반도체 장비 23종 수출 규제 도입

- 7.23일(현지시간) 닛케이신문에 따르면, 日 경제산업성은 외환법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노광·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*을 수출 관리 대상에 추가

* 23개 품목에는 반도체 회로의 미세가공에 필요한 극자외선(EUV) 관련 제조 장비, 식각(에칭) 장비 등이 포함되었으며, 이러한 장비는 회로선 폭 10~14nm(나노미터·10억분의 1미터)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수

- 한국, 미국, 대만 등 42개* 우호국 및 지역 이외 국가는 반도체 노광·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 시 수출 장치 품목 사양, 수입업자 제조 반도체의 용도 등을 日 경제산업성에 신청하여 수속 절차를 진행해야 함
 - * 42개 국가·지역은 포괄 허가 대상으로 수출 절차 간소화
-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'22.10월 對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, 기술 공여를 제한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임

- 중국은 반도체 관련 수입의 약 30%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, 이번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커질 경우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

출처: 닛케이신문(23.07.23), 세계일보(23.07.23), 이투데이(23.07.23)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

■ 【광물·배터리, 일본】 日 "아프리카 3국과 배터리 광물 개발"

- 8.2일(현지시간)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잠비아·콩고민주공화국·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3개국과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광물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보도

- 일본 에너지·금속광물자원기구(JOGMEC)는 이미 콩고·나미비아와 관련 각서를 체결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잠비아와도 광물 조사를 위한 협약*을 맺을 예정

* 닛케이에 따르면, "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성의 6~13일 3개국 순방 일정에 맞춰 협의가 이루어질 것"이라고 보도

- 일본 정부의 해당 계획은 글로벌 첨단 공급망에서의 탈(脫)중국화를 추진하기 위해 광물* 매장량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결속을 강화하는 대응조치로 분석됨

* 콩고)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, 세계 공급량의 70% 이상 차지

잠비아·나미비아) 구리·니켈·아연 등 첨단산업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자원의 매장량이 풍부

- 일본은 아프리카 현지 자원 탐사를 위한 위성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할 예정

* 일본 정부는 ▲3개국과의 관계 강화, ▲아프리카 내 채광·제련·유통을 포괄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함

출처: 서울경제(23.08.02)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

■ [광물, 베트남] 베트남, '30년까지 연간 200만 톤으로 희토류 생산 확대

- 7.25일(현지시간)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, 베트남은 첨단기술 적용 및 인프라 현대화를 통해 희토류 원광 생산량을 '30년까지 200만 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
 - 이날 쩌홍하(Tran Hong Ha) 베트남 부총리는 희토류 원광 생산량 확대 내용을 담은 '2021~2030년 광물 종합개발계획 승인 결정문'에 서명했으며, 결정문에 따르면 북부 라이차우(Lai Chau)·라오카이(Lao Cai)·옌바이(Yen Bai)에 소재한 9개 광산에서 희토류 원광을 채굴할 예정
- 미국지질조사국(USGS)에 따르면,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(약 1억 2천만 톤)의 약 18%(2,200만 톤)가 베트남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, 이는 중국(약 4,400만 톤)에 이어 세계 2위 수준
 - 베트남은 '21년 400톤에서 '22년 4,300톤까지 10배 이상 생산량이 증가한 바 있으며, '30년 이후부터는 3~4개의 추가 광산을 개발하여 연간 생산량을 '30년까지 202만 톤, '50년까지 211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

출처: 로이터통신(23.07.25), 뉴시스(23.07.25)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

■ [광물, G7] G7, 핵심 광물 특정국 수입 비율 설정 검토

- 7.25일(현지시간)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, G7은 탈탄소화에 필수적이고, 산업에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 목표 마련 중
 - 탄소중립에 필수적이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
 - 구체적으로, G7은 ①핵심 광물 수입 비중 목표를 정하고 ②특정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늘려, 목표 비율을 달성할 계획이며, G7 각국이 다른 자원국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
- IEA는 공급망 다각화 대상 핵심 광물을 선정하여 연내 제안할 방침이며, 현재 핵심 광물에 대한 정의가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G7은 IEA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출처: 한국경제(23.07.25)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

■ [광물, 전세계] ISA 심해 광물 채굴 허용 '24년 이후 결정...회원국간 의견 대립

- 7.31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에 따르면, 유엔 산하 해양 규제기관인 국제해저기구(ISA)는 지난 7월 이사회 회의와 회원국 총회를 통해 '24년까지 심해광물 채굴을 위한 법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합의
 - ISA 보도자료에 따르면, 이사회는 '24년 예정된 회의까지 채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워 '25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겠다는 잠정적 목표를 제시
 - 또한, ISA는 규정 마련 전 채굴 작업계획 신청서가 들어오면 차기 회의에서 우선순위 문제로 검토해야 하는, 이른바 '2년 룰'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
- 심해 채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 등과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독일·프랑스·스페인 등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음

출처: 연합뉴스(23.08.01)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

■ [제조업, 미국] 바이든 美 대통령, 자국 제조업 살리기 행정명령에 서명

- 7.28일(현지시간) 바이든 대통령은 美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할 경우,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
 - 바이든 대통령은 일명 “미국에서 개발하고, 미국에서 제조하라(Invent it Here, Make it Here)”로 불리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이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술의 국내 제조를 장려할 예정
 - 행정명령에는 ▲연방 기관이 R&D에 투자 시 ‘미국 내 제조’하도록 권장, ▲핵심 산업의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장 장려, ▲연방 R&D 프로세스의 요구 사항 간소화 등 내용 포함
- 이는 미국이 개발한 기술들이 해외에서 상품을 제조하는 데 쓰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, 최근 바이든 정부의 제조업 부활과 대중경쟁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
 -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·AI 등 미국의 첨단·핵심기술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對中 투자금지 행정명령에 8월 중순 경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

출처: 연합뉴스(23.07.29), 서울경제(23.07.30)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

■ [에너지, 중국] 中, 6년 만에 석탄화학 산업고도화 정책 발표

- 7.28일(현지시간) 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,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6개 부서는 전날 ‘현대 석탄화학 공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*’를 발표
 - * ▲석탄 에너지 공급대책 강화, ▲석탄화학 생산라인 신·증설 엄격 통제, ▲국토 계획·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생산라인 배치, ▲기술혁신 관련 투자 확대, ▲녹색·탄소중립 전환 가속화, ▲안전점검 강화 등 내용 포함
 - 생태환경을 위해 석탄화학 산업 생산라인 확장 및 소비량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면서 에너지용 석탄 공급보장 강조
 - '17년부터 시행해 온 “시범구 내 신규 석탄전환총량 2천만 톤 도달” 요구를 삭제하고, 메탄을 생산량을 연 100만 톤 이상 확보한 신규 프로젝트 심사권을 중앙정부에서 성(省)정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
 - 또한, 각종 에너지 장비와 관련해 에너지 효율 모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'25년까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그렇지 못할 경우 철거될 것이라 경고
-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석탄화학 산업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장은 석탄화학 산업을 고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속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신호라고 해석

출처: 국가개발위(23.07.27), 연합뉴스(23.07.28)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

○ 공급망 뉴스 더하기 : IPEF 4차 협상 주요 내용 및 경과

지난 5월 美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3차 협상에 이어 7.9일~15일 4차 공식협상이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다. 이번 4차 협상은 공급망 필라(필라2)의 조속한 이행 및 다른 3개 필라 성과 도출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. 아래와 같이 IPEF 4차 협상의 주요 내용, 현지 언론·기관 분석 및 협상 경과를 알아보자.

■ 인도-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 4차 협상 개요

- '23.7.9일~15일 IPEF 참여 14개국은 한국 부산에서 제4차 공식협상 진행
 - 제3차 디트로이트 협상에서 논의된 공급망 필라 타결 이후 개최된 첫 공식 협상으로, 공급망 필라의 조속한 이행 및 다른 3개 필라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의 진행
 - 미국, 일본, 호주, 싱가포르, 베트남, 인도 등 14개국 정부 대표 협상단 650여 명이 참석했으며, 미국 측 대표로 상무부 샤론 위안(Sharon H. Yuan) 고문 및 USTR 사라 엘러만(Sarah Elleman) 차관보 참석

■ IPEF 4차 협상 결과 주요 내용

- 7.16일(현지시간) 美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(USTR)는 4차 협상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검토를 포함해 4개 필라 모두 논의가 진전되었으며, 공급망 필라의 조속한 발효 및 효과적 이행 노력 언급
 - 美 상무부·무역대표부(USTR)는 공동 성명(Joint Readout)에서 4차 협상에서 4개 필라와 관련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으나,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음
 -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, 회원국 대표들은 △필라1(무역), △필라2(공급망), △필라3(청정경제), △필라4(공정경제)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했으며, 7.13일(현지시간) 2차 경청회를 개최해 IPEF 협상 의견 청취
 - 美 상무부는 이번 4차 협상을 앞두고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하는 등 공급망 필라의 조속한 발효와 효과적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, 이번 협상의 일환으로 공급망 협정의 '활용과 이행에 초점을 맞춘 협정 세미나도 함께 개최
 - 헬렌 스타리아노(Helen Stylianou) APEC 호주 대사는 “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데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 최초의 협정”이라며, 이번 협상에서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

■ IPEF 관련 현지 언론 및 기관 분석 주요 내용

- (인사이드트레이드) 잠정 11월 APEC 개최에 맞춰 공급망 필라 외 다른 3개 필라도 합의 노력 중
 - 공급망 필라 외 다른 3개 필라도 '23.11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비공식적 기한으로 고려해 합의 노력 중이며, IPEF 회원국들은 법적 검토를 거쳐 계약 이행을 위한 국내 승인 절차 필요
- (폴리티코프로) IPEF 분석보고서 발표를 통해 동향 및 향후 계획 조명
 - 인도·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임을 강조하며, 공급망 필라 외 다른 필라는 노동자 권리, 데이터 사용 규정 등 논쟁적인 주제가 포함되어 타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

- (PIIE) IPEF는 한국에게 기회와 위기 공존, 韓美-韓中 관계 균형 중요성 제언

-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(PIIE)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, 한국의 IPEF 참여는 다른 무역 협정(RCEP, APEC, CPTPP)과 보완적으로 한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나, 비회원국과의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언급
- 특히 철강 생산, 친환경 정책 등 美 수출 규제 및 이니셔티브 내 중국 소싱 규정 준수를 위해 한국의 對中 투자를 분리 또는 세분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

〈인도-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 협상 경과〉

| 구분 | 기간/장소 | 주요 내용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차 공식협상 | '22.12.10~15/ 호주 브리즈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개 필라(①무역, ②공급망, ③청정경제, ④공정경제) 협의 •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,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, 디지털 등에서의 규범 및 협력체계 구축 논의 • IPEF 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 관련 구체적인 아이디어 교환에 초점 • 참여국 간 필라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 협상 실시 | 디지털 노동, 환경, 공정경제 등 미국의 제안 부재 지적 (CSIS, '23년 3월) |
| 특별협상 | '23. 28~11/ 인도 뉴델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개 필라(공급망·청정경제·공정경제)만 논의하는 특별협상 (Special Round of Negotiations) • IPEF의 공유된 비전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참여국의 구체적인 혜택을 포함하는 협정에 협력 약속 • 청정경제에 대한 미국의 제안이 처음으로 제시 | 개최국 인도는 무역 필라 불참 |
| 2차 공식협상 | '23.3.13~3.19/ 인도네시아 발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개 전 필라 대상 두 번째 공식 협상으로, 필라별 실무 협상 및 수석대표회의 진행 • 처음으로 무역 필라의 세부 챕터로 노동, 환경, 디지털 무역, 기술 보조 등에 대한 논의 후 문서화 • 무역 촉진, 농업, 서비스 국내 규제, 투명성 및 우수규제관행에 대한 문서 구체화 • 디지털, 노동 및 환경에 대해 중점 논의 | IPEF 주제 전 필라에 걸쳐 처음으로 협상문 상정 |
| 3차 공식협상 | '23.5.8~15/ 싱가포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발리 2차 협상에 이어, 4개 전 필라 대상 세 번째 공식 협상 실시 • 필라2(공급망) 타결 전망 및 다른 3개 필라 추가 협의 | 대표단 전원 참석 |
| 4차 공식협상 | '23.7.5~15/ 한국 부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라2의 조속한 이행 및 다른 3개 필라 협의를 위한 세부 협의 실시 • 관계자 대상으로 1차 경청회(6.28, 워싱턴 DC)에 이어 2차 경청회(7.13, 부산) 개최 | 필라2(공급망) 타결 후 개최된 첫 공식회담 |

○ 공급망 전문가 : 중국의 드론 및 관련 부품·시스템 수출통제 살펴보기

중국은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갈륨/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이어, 오는 9월 1일부터 무인기(드론) 및 관련 부품과 시스템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. 중국의 드론 및 관련 부품/시스템 통제조치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

■ 중국 정부*는 금년 9월 1일부터 무인기 및 관련 부품/시스템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(7/31, 공고 27호/28호)

* 상무부, 해관총서, 국가국방과학공업국,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공동

무인기 및 관련 부품·시스템 (HS 10단위 기준 총 45개 품목)

| | |
|--------|---|
| ▶ 통제품목 | ○ 무인기 관련 부품·시스템(27호 공고): 29개 ○ 무인기 관련 품목(28호 공고): 16개 * 28호 공고 품목 16개는 임시조치로, 규제기간은 최대 2년 |
|--------|---|

- 동 공고를 통해 중국은 기존의 수출통제 기준 외에 다음의 지표*에 부합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수출통제를 명시

* 28호 공고 명시지표 : ▲조종사가 시야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도 조종이 가능 ▲최대 지속 비행시간 30분 이상 ▲최대 이륙 중량이 7kg 이상 ▲무인 비행기의 무게 4kg 이상 ▲기타 무선 전파 장치의 출력이 국가무선전관리위원회의 출력 기준을 초과하거나, 투하 장치가 내장되었거나, 고해상도 스펙트럼 카메라가 탑재된 경우 등

■ 신규 지정된 통제품목은 <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> 취득 후 수출 가능

수출허가증 발급절차

| | |
|------|--|
| ①수출자 | 성(省)급 상무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'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'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|
| ②상무부 | 수출신청서 접수 후 심사, 법정 기한 내 허가여부 결정,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출 시 국무원 비준 필요 |
| ③상무부 | 심사 후 '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(수출 허가증)' 발급 |
| ④수출자 | (해관) 수출허가증 제출, 통관수속 진행 |
| ⑤해관 | 상무부 발급 '수출허가증'에 따라 검사, 승인 |

■ 각국은 갈륨/게르마늄 및 드론 등의 수출통제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살피면서, 중국의 핵심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력중

○ EU 집행위는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드론 수출통제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

■ 중국의 수출통제가 국내외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뿐 아니라, 수출통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점검하고 수입처 다각화, 핵심공급망 내재화, 국제협력 강화 등 중장기적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함

◎ 공급망 소식통 ① : 2023 Korea Electric Vehicle Autopart Plaza 안내

KOTRA는 EV 분야의 국내 부품 장비 기업의 북미시장 공급망 진입 기회 창출을 통한 시장 변화 선제 대응 및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■ 모집 개요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|---|
| 행사명 | ▸ 2023 Korea Electric Vehicle Autopart Plaza(KEVAP) |
| 일시/장소 | ▸ '23.9.15(금) / 캐나다 토론토 델타 호텔 |
| 대상 | ▸ 국내 EV 및 배터리 관련 부품, 소재 및 장비기업 |
| 신청기한 | ▸ ~'23.8.11일 마감 |
| 참가바이어 | ▸ Magna, Martinrea 등 OEM, Tire 1, 관심바이어 및 유관기관 40개사 |

■ 타깃 분야

| 구분 | 분야 | 세부 품목 (분야)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재 (배터리) | 셀 핵심부품 | 양극재, 음극재, 분리막, 전해액 |
| | 제련·재생 | 원소재 회수·재생 습식·건식 제련 등 |
| | 가공 | 공정 전반(부품·셀·모듈·케이스) |
| 부품 | 전분야 | EV 생산에 수요되는 전분야 부품 |
| 장비 (EV) | 소재 | 배터리 소재 생산 및 제련 장비 |
| | 전장 | 모터(엔진), 감속기(변속기) 관련 장비 |
| | 충전 | 완속/급속 충전기, On board Charger, 충전인프라 등 |

■ 신청 방법

- KOTRA 무역투자24([클릭](#))를 통해 신청 / 사업 검색란에 “KEVAP” 검색 후 사업명 찾기

* KOTRA 회원가입 필수

■ 문의처

- KOTRA 토론토무역관(☎ 416-368-3399, ✉ jay.byun@kotra.ca)

- KOTRA 소재부품장비팀(☎ 02-3460-7640, ✉ seokhwan1@kotra.or.kr)

◎ 공급망 소식통 ② :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대중국 무역의존도 향방 세미나

세계경제질서가 국가 간 협력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**글로벌 공급망의 무기화 위험이 현실화되고**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급망 관련 실증적 데이터를 기초로 **반도체·배터리·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현황을 분석, 제시**하고, 이들 물품의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**각국의 노력과 내재적 한계,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향**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.

■ 세미나 개요

- 일시 : 2023년 8월 29일(화) 14:00~17:00
- 장소 :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(* 주차권은 제공되지 않습니다)
- 주최/주관 : 한국무역협회 / (사)테크앤티트레이드연구원

■ 프로그램

| 시간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Opening Session | | |
| 14:00-14:03 (3) | 개회사 | -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|
| 14:03-14:08 (5) | 축사 | -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|
| 14:08-14:10 (2) | 기념촬영 | |
| Session 1 : 재편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: 현황과 전망 | | |
| 14:10-14:40 (30) |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 | -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박사 |
| 14:40-14:50 (3) | 지정토론 | -이창한 (前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) |
| Session 2 : 배터리 공급망 현황과 위험분산 전략 | | |
| 14:50-15:20 (3) | 과연 중국 없이 배터리 만들 수 있나? | -조철 산업연구원(KIET)박사 |
| 15:20-15:30 (3) | 지정토론 | -김승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 |
| 15:30-15:45 (3) | COFFEE BREAK | |
| Session 3 :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중국의존도 | | |
| 15:45-16:15 (3) | 어디까지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? | -박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|
| 16:15-16:25 (3) | 지정토론 | -김재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장 |
| Session 4 : 미국·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관리 및 재편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| | |
| 16:25-16:55 (3) | 발제 | -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|
| 16:55-17:05 (3) | 지정토론 | -송경진 (前 세계경제연구원장 박사) |
| 17:05-17:20 (3) | Q&A | |
| 17:20-17:25 (3) | 종합평가 및 폐회 | 김두식 테크앤티트레이드연구원 상임대표 |

* 세부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

■ 문의처

- 참가신청 관련 문의 :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(☎02-6000-5071, ✉ jh.jan@kita.or.kr)
- 세미나 전반 문의 : (사)테크앤티트레이드연구원 (tnt@techtrade.org)

- 신청 안내 : KITA.net 홈페이지 ([클릭](#))

글로벌 경제지표(23. 8. 8. 화)

[환율]

| | '21말 | '22말 | '23.7말 | 8/4 | 8/7 | 8/8 | 전일비 | 22말비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₩/U\$ | 1,188.80 | 1,264.50 | 1,274.60 | 1,309.80 | 1,306.20 | 1,315.70 | 0.73% | 4.05% |
| 선물환(NDF,1월물) | 1,190.00 | 1,265.30 | 1,272.10 | 1,307.60 | 1,304.00 | 1,314.70 | 0.82% | 3.90% |
| ₩/CNY | 186.51 | 181.44 | 178.33 | 182.37 | 181.59 | 182.54 | 0.52% | 0.61% |
| ₩/¥100 | 1,032.48 | 945.56 | 899.76 | 919.87 | 918.50 | 919.56 | 0.12% | △2.75% |
| Y/U\$ | 115.14 | 133.73 | 141.66 | 142.39 | 142.21 | 143.08 | 0.61% | 6.99% |
| U\$/EUR | 1.1318 | 1.0617 | 1.1010 | 1.0951 | 1.0972 | 1.1000 | 0.26% | 3.61% |
| CNY/U\$ | 6.3681 | 6.9630 | 7.1466 | 7.1806 | 7.1941 | 7.2120 | 0.25% | 3.58% |

* '22년 평균 환율: (₩/U\$) 1292.2원, (₩/¥100) 983.8원, '23년 평균 환율('23.1.1~현재): (₩/U\$) 1294.3 (₩/¥100) 952.5원

[유가/원자재] (원유 \$/배럴, 철광석.비철금속 \$/톤)

| 구 분 | '22년 최저(해당일) | '22.12.31 | '23.8.7(전일) | '23.8.8 | 전일비 | '22년최저비 | '22년말비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원유(두바이) | 71.83(12.12일) | 78.77 | 87.73 | 87.09 | △0.6 | 15.3 | 8.3 | |
| | | | | | △0.7% | 21.2% | 10.6% | |
| 철광석 | 79.50(10.31일) | 117.35 | 104.10 | 104.80 | 0.7 | 25.3 | △12.6 | |
| | | | | | 0.7% | 31.8% | △10.7% | |
| 비철금속 | 구리 | 7,000.00(7.15일) | 8,387.00 | 8,495.00 | 8,276.00 | △219.0 | 1276.0 | △111.0 |
| | | | | | | △2.6% | 18.2% | △1.3% |
| | 알루미늄 | 2,080.00(9.28일) | 2,360.50 | 2,178.00 | 2,143.00 | △35.0 | 63.0 | △217.5 |
| | | | | | | △1.6% | 3.0% | △9.2% |
| | 니켈 | 19,100.00(7.5일) | 30,425.00 | 21,250.00 | 20,650.00 | △600.0 | 1550.0 | △9775.0 |
| | | | | | | △2.8% | 8.1% | △32.1% |

[반도체]

| | '21 | '22 | '23.5월 | '23.6월 | '23.7월 | 8/3 | 8/4 | 8/7 | 8월(~7)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D램(8G) 현물가(\$, 기간평균) | 3.99 | 3.07 | 1.58 | 1.51 | 1.49 | 1.47 | 1.46 | 1.46 | 1.47 |
| (%, YoY) | 29.9% | △23.0% | △53.9% | △55.2% | △52.1% | △46.4% | △46.2% | △45.6% | △47.0% |
| 낸드(128G) 현물가(\$, 기간평균) | 6.55 | 7.25 | 6.39 | 6.33 | 6.31 | 6.33 | 6.33 | 6.33 | 6.32 |
| (%, YoY) | 14.7% | 10.7% | △22.6% | △20.9% | △7.7% | △3.7% | △3.7% | △3.7% | △3.7% |

[SCFI(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)]

| 구 분 | '21.12.31 | '22.12.30 | '23.7.14 | 7.21 | 7.28 | 8.4 | 전주비(7.28) | '22년말비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SCFI | 5046.66 | 1107.55 | 979.11 | 966.45 | 1029.23 | 1039.32 | 1.0% | △6.2% |

[BDI(Baltic Dry Index, 발틱운임지수)]

| 구 분 | '21.12.24 | '22.12.23 | '23.8.2 | 8.3 | 8.4 | 8.7 | 8.8 | 전일비(8.7) | '22년말비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BDI | 2217 | 1515 | 1123 | 1128 | 1136 | 1145 | 1142 | △0.3% | △24.6% |



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산업부 | 산업공급망정책과 |
| 한국무역협회(KITA) 공급망분석팀 | 김 경 훈 김 희 영 박 가 현 도 원 빈 김 소 민 |
|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| 고 총 성 신 재 훈 이 윤 지 전 해 윤 |
| 에너지경제연구원(KEEI) 미래전략연구원팀 | 석 주 현 |

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[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]

문의

산업분석실 (한국무역협회) : gvc_research@kita.or.kr
 공급망모니터링실 (KOTRA) : gvc_monitoring@kotra.or.kr

<구독>



※ 메일 구독(수신) 신청 :
<https://forms.gle/twC4m3uNTm14t2sR8>

<피드백>

※ 피드백하러 가기 :
<https://forms.gle/sftFKhLd4Xh49pxu9>



주관기관



협력기관

